중국쇼크, 석유화학 영향 없다!

철강·시멘트 자급률 80% 이상에 긴축정책 … 오히려 기회

석유화학기업들이 4월30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정책 발언에 대한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며 오히려 중국 수출증가를 예상하는 등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중국의 긴축정책 적용분야는 철강, 시멘트, 부동산 등으로 이미 중국의 자급률이 80%에 육박해 공급과잉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 및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공급과잉에 이르고 있는 산업을 규제함으로써 전력 및 에너지난의 해소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부족량은 에틸렌 환산 2000년 수요 1000만톤에 공급 600만톤으로 부족량이 400만톤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생산능력 1249만톤에 수요가 2190만톤으로 공급부족량이 941만톤에 달했다.

따라서 부족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중국은 세계 석유화학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합성수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수요증가율 7.3%에 공급증가율 10.6%로 수요증가량은 매년 160만톤에 이르나 공급증가량은 132만톤에 불과해 오히려 공급부족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급부족량이 1000만톤에 이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부족률도 50%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이 긴축정책을 진행해 석유화학제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중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석유화학제품 수입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긴축정책이 이루어져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시멘트 등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성장률 억제는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들에게 전력난을 완화시켜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전력난으로 제한적인 공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발전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가 억제된다면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PVC(Polyvinyl Chloride), ABS(AcrylonitrileButadiene Styrene)의 수요가 자동차, 건설 등에 집중돼 있어 긴축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국내기업들은 기회에 더 큰 가능성을 두고 있다.

중국의 PVC 시장은 크게 중국 국내시장과 자유무역 지대에서 사용되는 재수출용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한국산은 관세 장벽에 의해 중국 국내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재수출용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PVC 생산공장은 일반적인 EDC-VCM-PVC에 이르는 생산공정이 아닌 카바이드(Carbide) 공법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데 카바이드 공법은 EDC-VCM-PVC에 이르는 생산방법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이 소모돼 오히려 긴축정책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력 안정을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중국 국내시장을 역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중국의 PE 수급 전망

(단위: M/T, %)

구 분	생산량	국내수요	과부족	자급률
2002	3 472	7 935	4 463	43.8
2003	3 231	8 422	5 191	38.4
2004	3 329	8 937	5 608	37.2
2005	3 905	9 484	5 579	41.2
2006	4 816	9 923	5 107	48.5
2007	5 607	10 381	4 774	54.0
2008	5 915	10 860	4 945	54.5

또 비록 부동산 산업에 대한 긴축정책에 돌입한다고 해도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축시장보다는 레저 및 각종 여가시설 등 비주거용 시장에서의 위축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 실제 건축용 PVC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중국의 2003년 GDP 성장률이 9.1%로 발표됐으나 실제로는 11% 이상의 성장을 거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률 저하로 2004년 성장률이 7%에 이른다고 해도 실제로는 9%에 육박하는 성장률』이라며 중국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의 성장률 조정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Atofina 관계자는 중국쇼크에 대해 국내 여론은 들끓고 있으나 해외여론은 지나치게 조용한 점을 지적하며『과거 중국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 심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단가 상승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현재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친 호황으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는 있으며, 비수기가 다가오고 정기보수가 완료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단기적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화학저널 2004/6/7>